

# “1년만의 귀환, 기분 묘해”... ‘기생충’ 아카데미 후일담

### 봉준호 “한국영화 발전했지만 젊은 감독 모험적 시도 어려워져”

### “홍콩영화 쇠락 길 걷지 않으려면 도전적 이야기 산업이 수용해야”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의 주요 제작진, 주연 배우들이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 후일담과 소감을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진행된 영화 ‘기생충’ (감독 봉준호)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봉준호 감독과 박신애, 한진원 작가, 이하준 미술감독, 양진모 편집감독, 배우 송강호, 조여정, 박소담, 이선균, 이정은, 장혜진, 박명훈이 참석했다.

아침부터 ‘기생충’의 기자회견에는 5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AFP와 BBC코리아, CNN, 아사히 신문, 중국신문사들 외신 매체들도 참석해 현장을 취재했다.

이날 봉준호 감독은 “여기서 제작발표회를 한 지 1년이 돼가려고 한다. 그만큼 영화가 긴 생명력을 갖고 세계 이곳저곳 다니다가 마침내 여기 오게 돼서 기쁘고,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기분이 묘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봉 감독과 함께 시상식 레이스를 함께 한 송강호는 “처음 겪어보는 과정이었고 봉준호 감독님하고 6개월 전, 작년 8월부터 오늘까지 영광된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다”며 “또 좋은 성과,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객들에게 뛰어난 한국 영화 모습 선보이고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와서 너무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기생충’은 전원백수인 기택네

장남 기우가 고액 과의 면접을 위해 박사장네 집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이 결실을 맺은 영화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개 상을 수상했다. 이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최다 수상 기록이다. 또 작품상 수상을 놓고 보면 한국 영화로도 비영어권 영화로도 최초의 기록이다.

‘기생충’은 지난해 열린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도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 동시 수상은 ‘잃어버린 주말’ (1946)과 ‘마티’ (1956)에 이어 세번째며, 64년만에 나온 새 기록이다.

앞서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 수상 당시 마틴 스코세이지를 향한 존경심을 언급하며 “그의 수상 소감 당시 오스카 객석의 배우 및 할리우드 관계자들은 두 사람을 향해 기립박수를 치며 역시 낯다른 감동을 표한 바 있다.”

봉 감독은 “오늘 아침에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편지를 보냈다. 몇 시간 전에 그 편지를 읽었는데 저로서는 영광이었다”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라 내용 보내는 건 실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밝히면 그동안 수고했고 쉬라고 했다. 대신 조금만 쉬라고 하시더라. 다들 차기작을 기다리니 조금만 쉬고 빨리 일하라고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기쁘다”고 밝혔다.

HBO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는 “말다 스윈튼과 마크 러팔로가 캐스팅 물망에 올라 화제가 된 바 있다. 봉 감독은 “언급하는 것은 이르고 공식적인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아담 맥케이와 초기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 이야기 방향과 구조들을 논의하고 있는 시작 단계다. 금년 5월 ‘설국열차’ TV 시리즈가 2013, 2014년부터 준비했던 것이다. 5년만에 방송되는 것을 보면 ‘기생충’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라고 했다.

행사 말미 봉준호 감독은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해에서) ‘플란다스의 개’ 때 얘기를 많이 한다. 신인 감독이 ‘플란다스의 개’ 시나리오, 신인 감독이 ‘기생충’과 토시까지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져왔을 때 투자받고 촬영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냉정하게 해봤을 때 내가 1999년에 데뷔했는데 20여년간 한국영화가 눈부신 발전이 있었고 그렇지만 동시에 젊은 감독들이 이상한 작품, 모험적인 시도를 하기에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능있는 친구들이 산업으로 흡수되기보다 독립영화를 만드는, 독립영화와 산업의 메인 스트림이 평행선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2000년대 초, ‘플란다스의 개’ ‘살인의 추억’을 찍은 당시에는 서로 간에 독립영화의 메인 스트림이 좋은 의미에서의 상호 침투, 다이나믹한 충돌이 있었다. 그런 활력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이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영화 기생충의 주역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영화 ‘기생충’ 기자회견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영화 ‘기생충’은 한국 영화 최초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국제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 각본상을 수상하며 65년 만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석권하는 쾌거를 거뒀다.

되는 지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0년대와 90년대 인기가 있었던 홍콩 영화의 쇠락에 대해 언급, “그런 길을 걷지 않으려면 지금 한국의 산업이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영화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더 도전적인 이야기를 산업이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은 미국에서의 시상식 레이스 후일담에 대해서도 밝혔다.

송강호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할 때를 회상하며 “사실 화면을 잘 보면 바로 옆에 앉아 있어서 계속 제 모습이 나왔는데 굉장히 자제했다”며 “왜냐하면 제가 칸 영화제 때 제가 너무 과도하게 해서

감독님 갈비뼈에 실금이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얼굴 위주로 어쩔 뻔 했을 때리고 뒷목을 잡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갈비뼈만 피해서 다양하게 했다”고 말하며 특유의 유머 감각을 발휘했다.

이선균은 “너무 박장을 느꼈다. 이렇게 벅차게 눈물이 날 수 있구나 싶더라. 저희가 어느 도전,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게 부문 상을 받고 보니 아카데미가 큰 선을 넘은 것 같더라. 편견없이 저희 영화 응원하고 좋아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조여정은 “무대에 섰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 표정을 재밌게 만든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 뭐랄까 저희만 한국 사람이 고 타지에서 무대 전체에 올라간

것을 보면서 영화의 힘은 대단하구나, 감독님의 수상 소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영화라는 한 가지 언어구나 그게 체감이 됐다”고 했다.

영화 속에서 가정부 역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정은은 “‘기생충’ 끝날 무렵, 인터뷰할 때마다 배우가 되어서 할리우드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했는데 영화를 잘 찍으니가 굳이 할리우드 가지 않아도 세계가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기생충’의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기생충: 흑백판’을 오는 26일 개봉한다. 이미 국내에서 천만 관객 돌파에 성공한 이 영화가 또 한번 흥행 기록을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 서현 “오랫동안 사랑받는 배우 되고파” 소감



배우 서현이 ‘안녕 드라콜라’ 흥행 소감을 전했다.

지난 18일 JTBC 드라마 페스타 ‘안녕 드라콜라’가 2부 방송을 마지막으로 종영했다. 서현은 극 중 엄마의 뜻대로 살아온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안나 역을 연기하며 1년

반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했다. 서현은 ‘안녕 드라콜라’에서 가장 인정받고 싶었던 엄마가 자신을 외면했을 때의 괴로움, 8년간 시련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의 슬픔 등 안나의 요동치는 감정을 이질감 없이 파고들며 보는 이들을 몰입하게 했다.

또한 서현은 혹독한 성장통을 겪으며 한뼘 더 자란 모습까지 보여주며 안방극장에 따뜻한 위로와 공감까지 전했다.

서현의 진정성과 성실함은 2회라는 짧은 호흡을 더욱 이롭게 만들었다. 특히 특유의 감직하면서도 처연한 색깔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보는 이들을 만나 캐릭터에 온전히 집중시키는 힘을 발휘했

다. 서현은 19일 소속사를 통해 ‘안녕 드라콜라’를 마친 것에 대해 “촬영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안나를 연기했다. 그래서 마지막이 더욱 섬세하고 아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드라마를 촬영하는 동안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신들이 많아 힘들기도 했지만, 좋은 스태프분들과 감독님, 배우분들과 함께 해서 행복하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라며 “‘안녕 드라콜라’는 종영했지만, 많은 분들께 좋은 기억으로 남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 저 역시도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다.

## ‘슬기로운 의사생활’ 조정석→유연석, 5인 포스터 공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훈훈한 완전체 포스터가 공개됐다.

tvN 2020 목요일스페셜 ‘슬기로운 의사생활’ (극본 이우정/ 연출 신원호) 측은 19일,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명 전미도의 모습을 담은 완전체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완전체 포스터 2종은 드라마의 배경이 될 병원 복도에서 각자 수술을 마친 듯 스크럽복을 입고 있는 의대동기 5인방의 모습을 담았다. 이준(조정석 분), 정원(유연석 분), 준완(정경호 분), 석형(김대명 분), 송화(전미도 분)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서 이들의 훈훈한 동기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특히 닳은 듯 다른 의대동기 5인방의 표정은 앞으로 이들이 보여



줄 연기 시너지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한편 ‘슬기로운 의사생활’

은 오는 3월12일 오후 9시 처음 방송된다.

## 하정우,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치료 목적” 해명

### 강제규 감독 ‘1947 보스톤’ 개봉 앞뒀뒀...김성훈 감독 ‘피랍’ 등 출연 예정도

배우 하정우(42·본명 김성훈)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소속사 공식입장을 통해 해명에 나선 가운데, 그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들어 유명 영화배우가 한 병원에서 친동생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 및 의병 보도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해당 배우가 하정우가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하정우 소속사 위크하우 스크립티 측은 마침내 18일 오후 대안 입장을 밝혔다.

하정우 측은 먼저 얼굴 부위 흉터 치료와 관련, “2019년 1월 경부터 9월까지 약 10회 가량으로, 강도 높은 레이저시술을 받았다.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어떠한 약물 남용도 전혀 없었다”며 “하정우는 치료에 어느정도 효과를 본 후, 그 해 가을 경 내원을 마쳤다”라며 치료 목적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배우 출신 동생 명의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원장은 최초 방문 시부터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오라고 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중시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은 하정우에게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으로 막연히 생각했고, 의사의 요청이라 별다른 의심없이 전달했다. 하정우로서는 치료 사실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원장의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나 경솔하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이러한 오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병원 방문 일시를 예약하는 과정 그리고 치료 후 경과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원장과 주고받은 수개월 간의 문자 내역과 원장의 요청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과정이 확인되는 문자 내역이 남아 있다”라며 “그 내역을 보면,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출입한 사실, 그 일시 등이 명백히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수사기관이 사실확인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우가 출연한 영화 ‘클로젯’ (감독 김광민)은 현재 상영 중이다. 이번 논란으로 이 작품이 흥행에 어떤 영향을 받을 지도 관심사다.

또한 하정우는 올해 강제규 감독의 ‘1947 보스톤’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김성훈 감독의 영화 ‘피랍’ 등에 출연할 예정이기도 하다.

## 최귀화, ‘범죄도시2’ 확정...미동석과 케미 한번 더

배우 최귀화가 영화 ‘범죄도시 2’ (감독 이상용)로 다시 돌아온다. ‘범죄도시2’는 지난 2017년 개봉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도 688만 관객이라는 흥행성적을 거

둔 영화 ‘범죄도시’의 후속편이다. 최귀화는 ‘범죄도시’에서 전일만 반장 역을 맡아 관객에게 소소한 웃음과 볼거리를 보여주며 신스틸러로 대활약한 바 있어 더욱

화제를 모은다. 최귀화의 출연 소식이 알려지자 ‘범죄도시’ 매니아층 또한 열광했다. 탄탄한 연기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코믹적 요소를 살려내며 마동석과의 빈틈없는 티카타카로 유쾌한 케미를 발산한 최귀화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